

편집후기

- 김상현 : 처음 편집회의를 하기 위해 와서 강남역에서 해맸던 기억이 납니다. 이제 강남역에 오는 것도 익숙해진 만큼, 편집회의에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. 한해 정말로 의미있는 편집 모임이었습니다. 모두 감사드립니다.
- 김성룡 : 편집위원님들 모두가 조직적으로 열심히 활동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런면에서 개인적으로 빛을 진 느낌이 듭니다. 내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진일보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.
- 김용석 : 학회의 입장에서는 30주년이고,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책임을 맡아 기술지와 일한 한해였습니다. 좋은분들과 알찬 내용들을 접할 수 있어 매우 즐거웠습니다. 신년에도 더욱더 짜임새 있는 기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- 김재경 : 2006년도는 30주년 특집호 준비하랴 바쁘게 지난 것 같네요. 그래도 저희 편집위원들께서 든든하게 협조해 주셔서 잘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.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, 많은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.
- 백현종 : 좋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드리고, 더욱 발전하는 '고분자과학과 기술'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
- 이상천 :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소중한 2006년 한해였습니다.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주신 모든 편집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또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.
- 이수형 : 편집위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성실히 임해 주시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올라오신 분들, 회의와 원고모집을 자신의 귀한 시간을 쪼개주신 분들 더욱 수고하셨습니다. 내년에도 좋은 인연들 맺으시고, 성숙한 기술지 되길 바랍니다.
- 허강무 : 2006년 1월에 기술지 편집활동에 참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첫 편집회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부담감이 앞섰습니다. 한해 동안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, 편집 분위기에 자연스레 동화되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확회일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. 내년에는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1년동안 주변에서 주신 도움에 감사드립니다.
- 홍성철 : 지난 1년 동안 별로 한 일도 없는데, 편집후기를 쓰려고 하니 쑥스럽네요. 매년 회의에 늦는 바람에, 다른 분들이 벌써 일을 다 해놓으셨던 기억만 납니다. 와중에 나름대로 즐겁고, 좋았던 것은 특집 한편을 준비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더욱 분 발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- 황진택 : 올 한해 고분자과학과기술지 편집일을 도와주신 편집위원님들 및 김보경 대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편집이사 감처럼 모든 과정을 챙겨 주신 김재경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, 편집업무를 이끌어주신 김정안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기술지로 여러분들과 접하겠습니다. 즐거운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 하시길 기원합니다.



김도윤



김상현



김성룡



김용석



김인선



김재경



박지웅



백현종



이상천



이수형



이원기



조규진



진형준



하승규



허강무



홍성철



황진택